

7월25일(월)/골4:2~6

제목: 맛있게 말하세요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서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였다(2절). 그리고 중보기도 제목 하나를 요청하였는데 그것은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해달라는 것이었다(3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다. 그리고 곧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개인의 석방과 재판에서의 승리보다는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소원했다. 그러한 중보기도가 뒷받침되면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더 잘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4절). 바울은 또한 항상 지혜있게 행하고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말 것을 부탁했다(5절). 그리고 양념이 잘 된 맛있는 대화를 하도록 부탁하였다(6절). 참 특이한 표현이다. 크리스찬의 말은 항상 맛이 있어야 한다. 매력이 넘치고, 기지가 있는 말을 하여야 한다. 크리스찬은 항상 무거운 말,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신앙 깊은 척 하는 말, 심오한 척하는 말만 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만나면 웬지 마음이 무거워지고 압박을 느끼면 안된다. 기독교를 활기 있고 맛있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접근하기 쉽게 만들 의무가 크리스찬에게 있다. 크리스찬은 항상 밝은 말, 재치있는 말, 즐겁게 하는 말을 하여야 한다.

7월26일(화)/골4:7~9

제목: 좋은 말을 고르시다.

바울은 편지의 끝부분에서 자기와 함께한 동지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다. 두기고라는 이름이 있다(7절). 바울이 편지 가운데 직접 기록하지 못한 말썽들을 있을 것이다. 바울은 편지에서 다 말하지 못한 자기의 상황과 당부와 권면의 말을 두기고가 다 알려줌으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로를 줄 것이라고 하였다(7~8절). 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있다(9절).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으로부터 벗어나 로마로 도망간 노예였다. 바울은 그를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를 벌주지 말고 따뜻이 맞아주라는 내용이었다. 도망하여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그 이후에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오네시모도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소식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줄 전령자로 임무를 맡았다(9절). 여기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오네시모” (9절)라고 표현했다. 도망자나 노예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다. 바울은 사람을 항상 좋게 표현하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언제나 최선의 말을 골라서 사용했다. 우리도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의 장점을 부각하는 말, 그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하는 말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7월27일(수)/골4:10~18

제목: 우리 집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자기 동지들의 이름을 계속 열거하고 있다. 아리스다고와 마가라는 이름이 있다(10절). 바울은 이들이 골로새에 이르거든 잘 대접해주라고 부탁했다(10절). 유스도라는 이름도 있다(11절). 유스도는 할레파 유대교신자였으나 개종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한 자였다(11절). 에바브라라는 이름도 있다(12절).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한 경력이 있는 자였다(13절). 그는 골로새 교회의 목회자이기도 했다(1:7). 그리고 바울은 의사 누가와 데마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눔바라는 여자와 이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하였다(14~15절).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보내고 라오디게아로부터 온 편지도 읽으라고 하였다(16절). 바울이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눔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15절)라는 대목을 주목해보자. 눔바의 집이 교회였다. 초대교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다. 이 때는 가정이 교회였다(롬16:5, 고전16:19, 몬1:2) 모든 크리스찬 가정은 교회이다. 우리 가정도 교회이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정말 교회다운가?

7월28일(목)/살전 3:11~13

제목: 사소한 일에도 기도합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11절). 그리고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끼리 나누는 사랑과 또 그들이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1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의 거룩함에 흠이 잡힐 데가 없기를 소원했다(13절). 그는 그들이 마지막 심판 날에 궁극적으로 안전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의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다. 그는 자기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데살로니가로 여행하는 것은 그렇게 중대 사안은 아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에 불과했다. 그냥 차비를 차려서 출발하면 된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지시와 지도를 구했다. 그는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구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는다. 반면에 자기 힘이 미치지 않는 중대 사안이나 긴급한 일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일상의 사소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도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7월29일(금)/살전 4:1~8

제목: 성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적으로 순결하라고 하였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가를, 자기에게 배운 대로 하라고 하였다(1절). 그는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며,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며,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하는 것이며, 색욕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3~5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더럽게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7절). 그러므로 만약에 그들이 이 경고를 저버리면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8절). 당시 헬라 사회는 성적 타락으로 매우 타락한 사회였다. 아내와 자식을 부양하는 가장이라도 혼외정사를 갖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들은 그 사회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는 “기독교는 최고의 윤리를 요구하는 종교이며, 순결과 가정을 지키는 최고의 보호자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크리스찬은 성적으로 순결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 자이다. 이것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